

청소년의 생활 스트레스와 청소년 비행의 인과경로에 있어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임금옥*, 강길현**, 박희서***

A study on the moderation effects of parents and adolescent's communication in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stress and juvenile's delinquents

Guem-Ok Lim*, Kil-Hyun Kang**, Hwie-Seo Park***

요 약

이 연구는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조절효과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하여 29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청소년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인과경로에 있어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낮은 경우에는 청소년의 충동성이 청소년 스트레스와 청소년 비행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가정생활에서 부모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Keywords : 부모와 의사소통, 스트레스, 충동성, 청소년 비행.

Abstract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s of adolescent's stress on juvenile delinquent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communication between adolescent and the parents. For this study, we sampled and surveyed middle school students. The analytical results are the followings. Juvenile's stress has a significant effects on juvenile's delinquents and the level of communication between juveniles and the parents is an important factor concerned

제1저자 : 임금옥, 교신저자 : 박희서

투고일 : 2014. 12. 19, 심사일 : 2014. 12. 22, 게재확정일: 2014. 12. 27.

*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겸임교수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with juvenile's delinquents. This study suggested som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is results.

- ▶ Keywords : adolescent's stress , communication between adolescent and the parents, impulse, juvenile's delinquents

I. 서 론

청소년의 비행문제는 가족과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비행이 청소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점점 폭력화·저연령화 되고 있으며, 여자청소년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에 의하면, 소년 형사범을 기준으로 2000년에는 18세-19세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이후 18세-19세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25.7%로 나타난 반면에, 14세-15세 청소년의 비중은 지난 10년간 26.7%에서 39.1%로 16세-17세의 비중은 34.5%에서 43.0%로 높아져 비행청소년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또 하나의 특징은 여자청소년의 비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기의 비행은 청소년 시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인기의 문제로 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당사자들만의 문제행동이 아닌 가정, 사회 및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행동이기에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 비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비행의 영향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 비행의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의 생활스트레스는 청소년 비행의 중요한 영향요인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충동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결국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 비행과정에 대한 이러한 인과 경로에 있어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조절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원만한 경우에는 가족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으며, 정서적 안정을 느낀 청소년들은 비행에 대한 노출을 자제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움으로써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 비행은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2).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충동성을 거쳐 청소년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해 보고, 그러한 인과경로에 있어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조절변수로서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검증해 봄으로써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II. 이론적 배경

2.1. 일상생활 스트레스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원인으로서는 가족이나 친구, 교사 및 학업 등 가정과 학교 및 사회로부터 소외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청소년들은 소외감을 느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가정생활에서 야기되는 청소년의 스트레스로는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 간의 불화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Barnett(2008)의 연구에서는 빈곤한 가정의 부모가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 또한 가정환경이 불안하여 가족 구성원 간에 화목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경우에는 심리적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 경우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되게 되고 스트레스로 인한 비행을 저지할 수 있다고 한다(4). 다음으로 청소년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곳은 대체적으로 학교로, 학교에서의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성적 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성적 문제, 교우문제, 가족 문제, 일상생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결국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기의 비행문제는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로 이어질 수도 있

다는 점에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일탈행위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에서 검증되고 있다. 가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스트레스 등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는 일탈행위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중독 위험군이 비위험군 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5). 그러나 똑같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청소년이 가진 환경과 대처능력 등에 따라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가령, 부모와의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증가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 비행문제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2.2 청소년의 충동성

충동성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충동성에 대해서는 인지충동성, 행동충동성, 무계획성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인지충동성이란 과제에 쉽게 집중하지 못하며 복잡한 일을 생각하기 싫어하며 다른 생각으로 인하여 한 가지 일에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음으로 행동충동성이란 사전 계획 없이 행동에 옮기는 현상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무계획성이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일이 없는 현상을 의미한다(6). 따라서 충동성이란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반응속도가 빠르며 예측능력이 부족한 성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청소년의 충동성은 청소년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령, 청소년 충동성과 도박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도박에 중독된 집단은 정상적인 집단에 비해 충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2.3 부모와 의사소통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란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하는 것. 즉 다른 사람과 정보를 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Galvin & Brommel(1983)에 의하면 의사소통이란 의미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상징적 상호교류 과정으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며, 유기체들이 기호를 통하여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해서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나아가서는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8). 의사소통은 인간 상호간의 이해와 정보의 교환이며,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언어로 몸짓, 감정, 신념, 생각 등을 전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침묵까지도 포함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의사소통이란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수단을 통하여 상호간에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부모의 의존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청소년들의 욕구와 부모 욕구 사이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어떤 시기보다도 부모와 의사소통이 절실히 요구된다. 부모-자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은 어떠한 비행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9). 그러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모 간 갈등으로부터 시작되어 사회성, 도덕성, 문제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그러므로 부모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거나 자녀가 좋아하는 문화 활동을 같이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의사교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4 청소년의 비행

청소년 비행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각 분야에 따라 용어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사회병리학에서는 반사회적 행동 및 비행이란 용어로 사용되며, 교육학에서는 요선도 행동 및 비행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은 현대사회에서 대체로 도리나 도덕 또는 법에 어긋난 옳지 못한 청소년의 행동을 말한다. 즉, 어른이 정해 놓은 규준에 비추어 청소년의 행동이 이 규준에 일치하면 모범적 행동이고 이를 벗어나면 비행이라고 단순하게 규정짓기도 한다(10). 비행청소년은 법정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범죄행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발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나타내거나 일회적인 행동 등, 일정한 사회 규칙을 어긴 행위를 모두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청소년 비행은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생활방식이 크게 변화되고 가정교육의 약화, 가족 해체,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청소년 비행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되면서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많은 고민과 불안을 갖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좌절과 갈등을 겪으며, 결과적으로 비행 또는 부적응 행동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 비행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비행을 저지르는 시기도 달라지고 있다. 사소한 비행의 시작은 중학교시기와 고등학교시기에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나(11), 심각한 비행의 시작은 고등학교 시기 보다는 중학교시기에 시작하는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5 선행연구

청소년기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여부는 청소년의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부모-자녀간의 대화단절은 청소년의 우울증, 충동적 행위등과 같은 문제 행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

친다[12]. 그리고 부모-자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가정생활을 원만히 하고, 부모-자녀간의 감정을 정화시켜 서로의 정보교환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자녀의 사회화와 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1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남학생의 경우에는 특히 아버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모두 우울과 비행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14]. 또한 청소년 비행행동에 대해서 부모와의 애착이 낮고 비행친구와 유대관계가 강할수록 보다 많은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15], 전반적으로는 부모 애착 요인 보다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요인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16]. 즉, 청소년 비행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그 시기는 본격적인 사춘기 시작인 중학생 시기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17].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정환경의 기능적 측면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이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청소년 비행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2]. 이와 같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의 수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 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충동성 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심하고 충동적인 경우에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청소년 스트레스, 충동성 그리고 청소년 비행 사이의 인과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인과모형 분석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 비행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스트레스가 충동성 및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III.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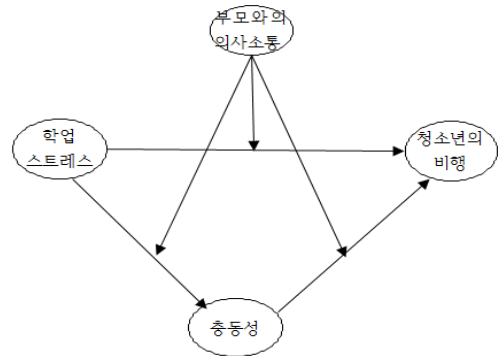


표1. 연구가설
Table 1. Research Hypothesis

- (가설 1)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 충동성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IV. 실증분석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2013년 12월17일부터 12월27일까지 광주광역시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남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자가 교사들에게 설문지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한 다음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후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기제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295부를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4.2. 측정도구 검증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 비행, 의사소통, 스트레스, 충동성 등 4개 요인을 확인하였다. KMO 지수는 0.878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역시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의 측정도구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분석은 Cronbach α 계수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는바, 비행, 스트레스, 충동성 등 4개의 측정항목에 대한 Cronbach α

계수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1.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Table. 1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성분			
	1	2	3	4
비행17	.85	-.01	.01	.04
비행16	.85	-.02	-.02	.01
비행15	.82	.04	.09	-.12
비행14	.80	-.06	.02	.11
비행10	.69	-.03	.23	-.09
비행4	.67	.03	.06	.06
비행3	.64	.13	.19	.06
비행9	.63	-.06	.01	.10
비행5	.62	-.11	.02	.09
의사소통9	.06	.79	-.19	-.09
의사소통6	-.08	.78	-.09	-.11
의사소통7	-.02	.77	-.11	-.04
의사소통3	.02	.72	-.09	-.01
의사소통5	.04	.71	-.07	-.12
의사소통1	-.02	.65	-.04	.01
스트레스3	.10	-.15	.85	.19
스트레스2	.14	-.17	.84	.21
스트레스4	.11	-.30	.79	.06
스트레스1	.08	-.05	.79	.11
충동성1	.03	-.03	.09	.82
충동성2	-.02	-.08	.19	.80
충동성3	.11	-.03	.15	.72
충동성4	.12	-.12	-.04	.72
충동성5	-.04	-.09	.13	.63
분산%	23.72	17.17	10.58	7.94
누적분산%	23.72	40.89	51.47	59.41

4.3 연구모형의 검증

이 연구에서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MOS 16.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는 χ^2 값은 1685.902, 자유도(df)는 695, χ^2 에 대한 p 값은 0.000으로 나타났다. 다른 적합지수로 절대적합지수 GFI, 증분적합지수 NFI, IFI, TLI, CFI와 간명적합지수AGFI 등이 모두 1에 가깝게 나타났다. 또한 RMR(원소간평균차이)값이 0.047로 0.05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RMSEA(근차평균계급근차이) 값은 0.065로 0.08보다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은 표본자료와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4 연구가설의 검증

첫째,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로계수 0.39, CR. 5.08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충동적이 됨을 의미한다.

둘째, 청소년의 충동성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계수가 0.15, CR 0.58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충동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적으로 볼 경우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계수가 0.21, CR 2.85로 나타나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청소년 비행의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인과관계 분석결과

Table 2. Analytical Results of Causal Relationships

인과경로	경로계수	S.E.	C.R.	P	Label
충동성 ← 스트레스	.39	.04	5.08	***	
비행 ← 스트레스	.21	.03	2.85	.004	
비행 ← 충동성	.15	.05	.58	.868	
스트4 ← 스트레스	.78				
스트3 ← 스트레스	.86	.08	15.70	***	
스트2 ← 스트레스	.88	.07	15.99	***	
스트1 ← 스트레스	.69	.08	12.11	***	
비행3 ← 비행	.59				
비행4 ← 비행	.64	.13	8.99	***	
비행5 ← 비행	.55	.14	8.06	***	
비행9 ← 비행	.54	.14	7.97	***	
비행10 ← 비행	.64	.13	9.01	***	
비행14 ← 비행	.77	.13	10.26	***	
비행15 ← 비행	.82	.10	10.65	***	
비행16 ← 비행	.84	.11	10.84	***	
비행17 ← 비행	.84	.12	10.86	***	
충동성5 ← 충동성	.53				
충동성4 ← 충동성	.60	.13	7.42	***	
충동성3 ← 충동성	.65	.16	7.82	***	
충동성2 ← 충동성	.81	.17	8.64	***	
충동성1 ← 충동성	.78	.16	8.55	***	

한편, 청소년의 스트레스, 청소년 충동성, 청소년의 비행 등 세 가지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가 부모와의 의사소통 여하

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여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사소통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경로계수가 .35, CR 값이 2.55, 유의확률이 $p=.011$ 로 나타나,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경로계수가 .01, CR 값이 .07, 유의확률이 $p=.95$ 로 나타나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여부를 검증한 결과에서도, $\Delta F^2 = 4.97$, 조절효과 p 값이 .000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기 위해,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사소통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경로계수가 .48, CR 값이 2.54, 유의확률이 $p=.011$ 로 나타나, 청소년의 의사소통이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의사소통이 높은 경우에도 경로계수가 .14, CR 값이 1.38, 유의확률이 $p=.17$ 로 나타나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여부를 검증한 결과, $\Delta F^2 = 3.96$, 조절효과 p 값이 .043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셋째, 청소년의 충동성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기 위해,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경로계수가 .20, CR 값이 1.91, 유의확률이 $p=.045$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경로계수가 .12, CR 값이 .75, 유의확률이 $p=.451$ 로 나타나 청소년의 충동성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여부를 검증한 결과, $\Delta F^2 = 5.97$, 조절효과 p 값이 .000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충동성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표 3.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Table 3. Analytical Results of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인과관계	조절 변수	집단	경로 계수	C.R.	p값	$\Delta F^2/df$	조절 효과 p값	가설검증
스트레스 → 비행	부모와의 의사소통	저	.35	2.55	.011	4.97	.000	채택
		고	.01	.07	.950			
스트레스 → 충동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저	.48	2.54	.011	3.96	.043	채택
		고	.14	1.38	.017			
충동성 → 비행	부모와의 의사소통	저	.20	1.91	.045	5.97	.000	채택
		고	.12	.75	.451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어떠한 인과경로를 거쳐서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G광역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청소년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동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동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청소년 스트레스와 충동성, 비행 사이의 모든 인과경로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비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청소년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는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

인입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문제, 가족 관련 문제, 친구관련 문제, 생활환경 관련 문제, 자기 자신 관련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는 청소년 비행의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정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청소년의 정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항상 순화된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스트레스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는 열악한 물리적 환경,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압박 등에 해소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수준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충동성 그리고 청소년 비행 사이의 인과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높은 경우에는 청소년의 스트레스나 충동성으로 인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낮은 경우에는 청소년의 스트레스나 충동성으로 인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의사소통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충동성은 전체적으로 청소년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낮은 경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스트레스로 인한 충동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충동성 문제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의 충동적인 심리와 비행의 문제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할 경우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주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스트레스로 인한 비행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위적인 태도로 자녀들을 대할 경우에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G 광역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로,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한 표본추출은 할당표본추출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서 청소년 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했다고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전국 수준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해 봄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Institute of Justice(2010). "Crime White Paper,"Game: Institute of Justice
- [2] Oh Yugyeong (2011). "Parents - Communicate with their children study on juvenile delinquency disposition."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3] Barnett, M. A. (2008). Economic Disadvantage in Complex Family System: Expansion of Family Stress Model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Vol.11, No. 3.
- [4] Jang Gyeongsu(2014). "Youth effect of stress on the fly,"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ology Dissertation
- [5] Lee, Sihyong, et al (2000). "Education of Children and Youth Internet Addiction," Samsung Life Public Mental Health Research Foundation.
- [6] Barratt, E. S., & Patton, J. H. (1983). Impulsivity: Cognitive, Behavioral, and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s. In M. Suckerman(ED), *Biological Base of sensationseeking, impulsivity, and anxiety*. Hillsdale, N. J.:Erlbaum.
- [7] Kim, Mingyong (2006). Exploring danger factors of pathological gambling. Ph.D. Dissertation Joongang Uni.
- [8] Galivin, K.M. & Brommel, B.J.,(1986). *Family Communion Cohesion and Change*(2nd de).Illinois: Scott, Foresman Company.
- [9] Park, Hwieso (2010). "The Factors affecting on Internet Addition in Adolescence and how to deal with it:: Focusing on Ecosystem Theory,"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5, No. 8.

- [10] Gim, Sahong(1997). "Understanding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nd guidance"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 [11] Jeong Hyewon(2008). Impact of life events on a flying start, PhD.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 [12] No Jeonghwa(2002).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Dong-A University Master of Education dissertation home
- [13] Yu Gyesuk(2007). "Adolescents perceived their parents-Communicate with their children and Self Esteem, Satisfaction friend friendship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mpact", Journal of Korea No. 25, No. 3
- [14] Kim, Ansangmi(2008). "Family cohesion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family conflict and adolescent depression and fly. Cheongsongyeonhak Volume 15, No. 2
- [15] Gim, Gyeong (2010). Parental behavior in juvenile delinquency factors and interaction effects of the factors Friend Study. Youth Welfare Studies, 12, No. 4
- [16] Jung, Eui Lom (2013). "Parental and Peer FactOrs Influence on Juvenil Dongguk University School of Police Administration and Criminal Justice Studies, Vol 3, Issue 1 Delinquency.
- [17] Hong Taegyeong, Ryu jun hyeok (2011). "Gender and age factors, comparative analysis of juvenile delinquency," Korea nonjip security administration, Vol 8, No. 3

저 자 소 개

임 금 옥

2011년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2009년 1월~현재 :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관심분야 : 가족복지, 청소년복지,
 상담심리, 사회복지실천
 E-mail : gylim0629@hanmail.net



강길현

2013: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현 재: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겸임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자립시설 운영
 E-mail : opswa@hanmail.net



박 희 서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1989년~현재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행정, 마케팅,
 정책학
 E-mail : hspark@chosun.ac.kr

